

I. 전망 배경

- 세계경제는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 및 글로벌 공조의 지속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추세임.
 - 주요국의 금융시장 안정화와 재정지출 확대정책 및 국제적 정책 공조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, 국제교역의 정상화 등 세계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추세
 - 미국,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내수부문의 개선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, 중국, 인도 등 신흥개도국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, 유로지역은 내수부진, 재정악화 등으로 회복이 지연
 - IMF는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세를 반영하여 2010년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작년 말 이후 두 번에 걸쳐 상향 조정
- 국내경제도 적극적 경기부양책의 민간부문 파급과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호조세를 보이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.
 - 유동성 공급과 통화스왑 체결에 의한 금융·외환시장의 안정, 재정지출 확대, 세제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, 소비 진작을 통한 민간 소비·투자 심리 개선으로 내수가 현저히 회복
 - 더욱이 세계경제의 회복세, 특히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
- 그러나 최근 유럽의 재정문제 등 잠재적 위협요인이 점차 표면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과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음.

-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적극적인 안정화체제 구축으로 진정되고는 있으나, 서유럽의 금융불안과 동유럽의 신용경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모습
 - 국내적으로는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려운 상황
- 전반적인 경제여건의 개선으로 보험산업도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으나, 금융업권간 및 보험업권내 경쟁 심화, 종목별 성장의 편차 등 시장구조에 변화가 초래되고 있음.
-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에 대한 금융업권간 유치경쟁 치열, 경험생명표의 개정에 따른 특정종목의 초과성장, 방카슈랑스를 중심으로 저축성자금 흡수를 위한 유치경쟁 등 보험시장의 일시적 변동과 종목별 성장의 편차가 초래
 - 무해약환급금상품이나 판매수수료후취상품의 도입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고,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보험상품 공시제도도 강화
- 이처럼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보험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보험산업 관련 주요지표를 전망하고,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.
- 국내외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에 대한 변화요인에 대해 분석하고, 주요 국내 경제지표에 대한 전망을 실시
 - 보험시장의 최근동향 분석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보험시장에 대한 전망을 수행하고, 이에 기초하여 시사점을 도출